

# 지역·단체 벽 허물고 '신행 UP'

## 국토개발연구원불자회 20주년 행사에 안양 5개 단체 함께 '합장'



직장직능 단체들은 최근 지역별 연대활동을 통해 달라진 실행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일터불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사진은 9월 23일 열린 안양시청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 등 안양지역 5개단체의 연합법회 모습.

같은 지역 또는 인근의 직장불자회간 연대활동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직장직능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업종과 직능의 공통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일터불교에 새로운 실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연대는 안양의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와 안양시청 불자회, 안양경찰서 정토회, 안양교도소 성불회, 운불련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의 교류.

9월 23일 의왕 용화사에서 열린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의 창립 20주년 법회는 지역 내 연대활동의 장점을 보여준 자리였다.

### 연대 통한 정보 교류 '일터 불교 활성화' 등 모색

올 들어 3월과 7월, 8월에 이어 네 번째 열린 연합법사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서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이날 안양시청, 안양경찰서, 운불련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회 등의 회원들은 이웃단체인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일터불교의 고충을 나누는 정겨운 모임을 연출했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

의 실행생활과 직장내 포교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의식 국토연구원 불자회 고문과 양진홍 회장이 각각 '허공 같은 마음을 바람처럼 쓰라' '건강생태회향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대종 앞에 섰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과 신진호 안양시청 불자회 고문, 김화자 안양경찰서 정토회 부회장은 직장내 일터불자들의 실행활동과 고충, 실행수기를 발표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연합법회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실행·포교사례, 수행프로그램 공유 등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함께 법회를 열고 교류함으로써 직장생활로 인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실행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법회 참가인원이 적어 지도법사를 초빙하기도 어렵던 일부 단체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은 "많은 젊은 회원들로 근근히 운영하는 직장단체들에게 같은 지역의 직장단체와의 연대는 '일터불교 활성화'라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와 경기북부지역 공무원불자들의 연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과 은평구청, 고양시청, 파주시청, 양주시청 등 인접한 지역의 공무원불자회는 지난 2월 첫 연석회의를 열고 서북부공무원 불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후 분기별 연합법회와 상호간 법회 참석, 지도법사 지원 등 개별불자회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광주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광주 지방국세청 보리회의 연대활동과 대구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 광주불교산악회의 합동산행,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및 산하 구청, 충남지방경찰청의 합동법회, 전남도청, 광주 동구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의 연합법회 등도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다. 이들은 직종과 직능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직장내 실행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연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실행활동으로 일터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글·사진=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중생 아픔 아는 약사보살 돼라"

#### 대구불교약사회, 첫 정기법회

대구불교약사회(회장 김태일)가 9월 23일 영남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창립 이후 첫 정기법회를 열었다.

60여명의 회원이 등장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의 법문에 이어 다과회를 통해 회원간 상견례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대구불교약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뜻을 담아 백옥부처님을 모시는 108통장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통장고불식도 있었다.

이날 우학 스님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 병을 치료했던 심정으로 환자들을 대한다면 그날 약을 내어놓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로 따르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약사보살이 되라"고 법문했다.

대구불교약사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무료 투약과 마약퇴치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우리단체 이사회

#### 권장섭

#### 서울노원경찰서 불교회장



1990년 문을 연 서울 노원경찰서에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불자 모임이 결성됐다. 오랜 기간 불교회 결성을 준비해 왔지만 경찰불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바쁜 업무로 인해 원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권장섭 교통지도계장(55·홍원·사진)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다.

권회장은 꽤나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할 당시 KBS, 불교방송 등에 2만여회나 출연했다

교통방송 2만여회 출연 경력 불자모임 창립, 포교에도 앞장

다. 최근시간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이었다. 경찰근무 기간 28년 가운데 26년을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자부심 또한 크다.

"방송을 하는 15년여 동안 사회적인 일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어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늘 감사했습니다."

권회장은 올 1월 경찰서내의 경승실을 법당으로 꾸미고 삼존불과 후불탱화 불사를 마쳤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지만 큰 욕심 내지 않는다. 법당을 다녀간 회원과 경찰들이 더 큰 신심과 열정으로 일할 수 있길 기도할 뿐.

그가 불자모임과 법당을 만든

것은 노원경찰서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초등학교때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대구 보현사 불교학생회에 다니면서 대성사와 육련암, 무아불교학생회를 연이어 창립했고, 영남대 불교학생회를 거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불교를 위한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인연으로 2000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교회를 만들거나 법당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보이지

만 '길'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지요. 아직도 법당이 없는 경찰서가 많은데, 그들도 '길'을 찾아 실행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회장은 실행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회 시절 선·후배들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달려 있음을 상기한다. 좀처럼 절에 가려하지 않는 요즘 청소년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퇴직하면 미래 불교를 기우는 일에 나서고 싶은 것이 어린이회부처 중·고등학생회, 대법당을 거쳐 불자의 길을 걷는 권장섭 회장의 바람이다.

박병영 기자

### "가정 사회 위해 봉사할 것"

#### 경남 공무원불자 '화합의 법회' 참선 실수, 숲길 명상 등 체험



9월 24~25일 하동 칠불사에서 열린 경남공무원 연합법회에서 경남지역 공무원불자들이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경남지역 공무원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법회'를 열었다.

경남남도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허하용, 이하 경남공불련)는 9월 24~25일 하동 칠불사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연합법회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창립 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법회는 하동군 공무원불자들의 주관으로 입재법회와 연합법회, 대의원총회 외에도 다도 시연, 참선 실수, 숲길 명상 등 산사체

험도 함께 진행했다.

연합법회에서 허하용 경남공불련 회장도 청 보견복지여성국장)은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 제자로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무원 불자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남공불련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팔만사천까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을 털어내고 가정과 사회, 나라

를 위해 봉사하는 참된 공무원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남공불련은 2001년 11월 경남도청을 비롯해 진주 양산 등 10여 시·군불자회가 동참해 창립한 이래 장원 마산 김해 합안 남해 합천 공무원불자들을 하나로 규합했다. 현재 경남공불련은 도내 모든 시·군에 1천여 회원을 확보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박병영 기자

### 성북승무소법우회 자원봉사단 발족

#### 부인회 주축, 활동 정례회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동기환)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창립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1월 19일 발족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순옥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계장을 초청해 9월 20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첫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그간 진행해온 봉사활동을 정례회·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창립

당시부터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광원과 혜명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에서 목욕, 청소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모임인 승만부인회를 주축으로 의정부 선재동 자원봉사센터 계장을 초청해 나갈 계획이다.

정찬연 교화부장은 "이웃을 돕는 자비함을 통해 회원간 우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인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 국태민안과 2005 APEC 성공개최기원 제6회 불교전통문화 팔관회

### ● 팔관회 동참안내

- 시민 불자 여러분이 소망을 담은 연등접수 및 영가천도제 접수를 통해 팔관회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팔 관 외 연 등 (1인 1등 10,000원): 회향 시민·불자
  2. 호 법 광 명 등 (1인 1등 100,000원): 각 사찰, 행단체 대표 및 회향 시민·불자
  3. 부산발접기원등 (1인 1등 500,000원): 각계 지도자 및 회향 시민·불자
  4. 수록고촌천도제 (영가 1위 5,000원): 회향 시민·불자

### ● 팔관회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으기

일일 한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자비의 쌀은 10월 15일(음. 9.13) 토요일 팔관회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팔관회 실천규범 팔재계 지키기

1. 불·살·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투·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음·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망·어(거짓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음·주(술)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가무를 삼가 하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매 아닌 때 먹지 말라

※ 부산불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관회 동참접수는 가까운 사찰에 문의바랍니다. ☎051)867-0501

## 10월 15일(음 9.13) 토요일 오후 5시

### 광안리해수욕장

식전행사 · 오후 4시 국태민안기원 영산재  
축하공연 · 오후 7시

- ▶ 주 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 ▶ 특별후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 ▶ 후 원: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연합회, BBS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방송, 교계 각 언론사



※ FM 89.9MHz BBS 부산불교방송으로 생중계합니다.

### 제6회 불교전통문화

# 팔관회

## APEC 성공개최기원

## 국태민안과 2005